

실천신학

코로나19와 교회의 역할

송영목(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초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크리스천은 전염병이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전염병이 심판이라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재난을 통해 하시는 일에 교회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중세 흑사병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A.C.) 주님의 다스리심(*Anno Domini*)은 어떤 양상인가? 이 글은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둔다. 이 글의 목적은 먼저 전염병과 같은 재난의 원인과 특징을 성경적으로 조망하고, 재난을 당한 사회를 위해 교회가 어떤 선교적이며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데 있다.

주제어: 코로나19, 교회의 역할, 전염병, 공동선, 선교적 교회

들어가면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다양한 재해(hazard), 재난(disaster), 그리고 재앙(catastrophe)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런 재난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유신론자는 신의 심판과 회개를 강조하고, 무신론적 철학자는 신의 심판이나 섭리라는 신정론을 반대하며, 사회-자연과학자는 사회와 자연의 원리를 따라 이성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정치인은 신앙과 학문의 통찰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오용하여 대중을 선동하기도 한다.²

지구가열화(global heating)로 인해 전 세계에 다양한 자연재해가 점증하고 인재(人災)도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 생태계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길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되갚아준다.³ 또한 지구촌의 도시화 덕분에 재난은 더 빠르게 확산한다. 이에 맞서 생태신학과 교회가 총체적 선교 차원에서 재난 사역(disaster ministry)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세계 복음주의교회 대회인 제3차 로잔대회에서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포괄하는 총체적 선교를 천명했다.⁴ 그렇다면 재난대처 공동체이자 위기관리 공동체인 교

1. 켈러(E. Keller)와 데베키오(D. DeVecchio)에 따르면, “재해는 인간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자연적 과정이나 사건을 말하고, 재난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한정된 지역에서 실제로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준 사건을 의미하고, 재앙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회복이 가능한 엄청난 재해이다.” 이병욱, “재난에 대응하는 PCK의 선교신학과 지역교회의 선교적 실천,” 『선교와 신학』 47 (2019), 355에서 재인용.
2. 박경수 외 (ed.),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교출판부, 2020), 21-26.
3. 신형섭 외 (ed.),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목회적·교육적 성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교출판부, 2020), 164.
4. 개혁주의가 지향하는 총체적 선교는 복음과 문화를 통합한다. 이 때 복음은 상황에서 도출되는 게 아니라, 상황 위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고 총체적 복음 선교가 급진적인 사회 변혁이라는 수평적 차원

회의 재난 사역은 부차적이라기보다 필수적 선교사역에 속한다.⁵ 교회는 신정론(神正論)을 넘어, 더 구체적인 ‘재난신학’(disaster theology)과 ‘재난회복신학’(resilience theology)을 성경신학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런 신학 위에 지속 가능한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로드맵과 실천 방안을 정립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와 교회는 재난에 대한 감수성 및 재난 대처와 구호를 위한 전문성과 연대성의 부족이라는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⁶

코로나19는 온라인 예배와 성찬의 정당성과 같은 신학적 논쟁을 촉발시켰고, 그 전염병 확산의 일등공신인 이단 신천지의 침투에 취약한 대형교회 대신 성도의 교제가 친밀하고 교회의 본질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강소(強小)교회의 모델에 대한 고민도 일으켰다.⁷ 강소교회는 교회당과 행사 중심의 숫자 성장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의 건강한 영성을 구현하기 적합하기 때문이다.⁸ 한국교회가 숫자적 성장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고 교인이명증과 같은 전통만 계승했다면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의 교회 유입을 예방할 수 있었다. 온라인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비제의화(de-ritualized)로 이끌 수 있는데,

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춘섭, “성경적 상황화를 위한 ‘Missio Dei’의 재고(再考),” 『개혁논총』 51 (2020), 260-62.

5. 박경수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87; 장남혁, “지역사회의 탄력적인 재난 대처를 위한 교회의 선교적 역할,” 『선교와 신학』 45 (2018), 414.
6. 이병욱, “재난에 대응하는 PCK의 선교신학과 지역교회의 선교적 실천,” 371-72.
7. 박경수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168. 참고로 양현표는 동네 안에 위치하며 목회자가 교인을 충분히 목양할 수 있는(요 10:3-4, 14) “작은 교회를 본질적으로 양과 질이 균형 잡혀 있으면서 공동체로서 그리고 한 몸으로서 원래의 교회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 교회”라고 정의한다. 양현표, “교회의 원형으로서 ‘작은 교회’의 회복: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 『개혁논총』 51 (2020), 121. 안명준 외, 『전염병과 마추한 기독교』 (서울: 도서출판 다함, 2020)도 참고하라.
8. 한국의 대형 개신교회(와 천주교)가 근본주의, 반공주의, 번영영성(prosperity spirituality), 권위주의 리더십, 복음의 자본화, 기복과 체형 위주의 반지성주의, 그리고 수평이동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사회 변혁적 영성의 결여를 보인다는 비판은 경동현, “한국 천주교회 영성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연구” (문학박사 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8), 89-92를 보라.

공동체의 준비되고 유의미한 잔치와 같은 예전은 반복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약화되고 녹슬기 때문이다.⁹ 코로나19의 위력이 정점을 지나자 지역 교회들은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재개하려고 시도했는데 불신자들의 적지 않은 반대에 직면했다. 교회가 헌금을 통해 재정을 보충하려고 현장 예배를 재개함으로써 이웃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교회는 이것을 어리석은 비관이라고 일축하기보다, 평소에 맘몬주의를 경계하면서 이웃을 구제하고 공동선을 위해 어떻게 교회 재정을 사용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했다.¹⁰

코로나19의 영향은 신학과 교회를 훨씬 넘어선다. 그 바이러스는 인간이 쌓아올린 안전과 번영과 (소비주의) 욕망이라는 우상을 한 순간에 허물어 버렸고, 어느 나라를 예외로 두지 않고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냈다(참고. 계 18:21-23). 온 세상에 코로나19는 마치 역사를 바꾼 영웅처럼, 두려움을 퍼뜨리고, 빈부격차가 생존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노출시키고, 삶의 방식과 교육 그리고 정책 등에 변화를 촉진시키고, 기저질환이나 노약자와 같이 취약한 사람들을 약탈하지만, 헌신과 친절과 사랑의 연대의 아름다움을 일깨웠다.

기하급수적으로 전염병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온 사회는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아수라장(pandemonium)이 되고 만다. 미국 정치평론가 프리드만(T. L. Friedman)은 역사를 새롭게

9. 참고. U. Brito, "Rituals in a Post Pandemic Age: 10 Notes on Food, Feasting and Friendship" (<http://kuyperian.com/10-notes-on-food-feasting-and-friendship/> 2020년 5월 8일 접속).

10. 지역교회는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높은 이윤을 기대하고 위험한 펀드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대신 헌금을 이자율이 낮더라도 지역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참고.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Grameen Bank]). 대출에 있어 탐욕과 속임을 경계했던 칼빈은 대출이 이윤에 기초하더라도 상호 이익과 공동선을 촉진할 것을 전제했다. 참고. B-S. Scott, "Where's Your Church's Money?: Banking for the Common Good," *Christian Century* September 21 (2010), 23-27.

구분하여 코로나 이전(B.C.)과 코로나 이후(A.C.)로 나누기도 한다." 프리드만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기근 그리고 전염병을 많이 겪은 나라는 규제와 처벌이 비교적 강한데(예.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법적 규제가 재난 시 생명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리드만은 정부가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합성생물학, 전염병학, 약학, 그리고 의학을 연계시키더라도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진단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크리스천은 전염병이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전염병이 심판이라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재난을 통해 하시는 일에 교회는 어떻게 수종 들 수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중세 흑사병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A.C.) 주님의 다스리심(*Anno Domini*)은 어떤 양상인가? 이 글은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둔다. 이 글의 목적은 먼저 전염병과 같은 재난의 원인과 특징을 성경적으로 조망하고, 재난을 당한 사회를 위해 교회가 어떤 선교적이며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인간의 환경 파괴로 발생한 Covid-19의 승자는 자연이라고 주장하는 위르겐 몰트만(J. Moltmann)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하나님께 치유와 위로를 갈구하지만, 구경꾼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난이 닥치도록 하셨는가를 묻는다."라고 일갈했다.¹¹ 이 글이 옳을 더 번민케 했던 친구들의 훈수처럼

11. T. L. Friedman, "Our New Historical Divide: B.C. and A.C.: The World Before Corona and the World After" (<https://www.nytimes.com/2020/03/17/opinion/coronavirus-trends.html>; 2020년 4월 18일 접속). 프리드만은 경제발전논리에 입각하여, 국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와 재난 자금의 제공을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발전된 학문의 연계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을 따라잡을 만큼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기 어렵다고 본다.

12. 예일대 교의학 교수 Miroslav Volf의 페이스북에서 인용(2020년 4월 20일).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1.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전염병 바이러스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한국의 일부 기독교인은 중국 우한시가 기독교를 박해했기에 하나님께서 Covid-19를 통해 중국을 심판하신다고 주장했다. 짐바브웨 국방부장관 무친구리(O. Muchiguri)는 서구 세계가 짐바브웨를 제재했기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아전인수격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28일에 천주교 교황은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이슬람 알 자지라 방송의 견해도 동일하다.

구약성경의 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는 전염병(pestilence) 혹은 재앙(plague, 78 [גָּזַח, קָרָח], מַגֵּפָה)을 하나님께서 징벌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를 시행하시기 위해서 세계 때리시는 것(smite)으로 언급한다(창 12:17; 출 5:3; 9:15; 11:1; 레 26:25; 민 11:33; 12:10; 25:1-9; 신 28:27, 59-62; 삼상 5:6-12; 삼하 3:28-29; 7:14; 14:37; 24:10-17; 왕하 5:27; 15:4-5; 대상 21:12-14; 대하 21:18-20; 렘 21:7; 24:10; 겔 14:21; 호 6:1; 암 4:11).¹³ 이 심판의 대상은 언약 백성과 애굽과 블레셋 같은 이방 불신자 모두를 포함한다.¹⁴ 그런데 어떤 구약

13. W. D. Mounce (ed), *Mounce's Complete Expository Dictionary of Old & New Testament Words* (Grand Rapids: Zondervan, 2006), 514; M. Mussman, "Sickness and Disease," i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ume 6, ed. by D. N. Freedman (New York: Doubleday, 1992), 8-9. 참고로 선지서에서 '재난'과 '야웨의 날' 그리고 '회개'는 밀접하다. 이종록, "재난(災難)의 해석학: 요엘 2장 1-17절 중심으로," 『성경연구』 9/8 (2003), 10, 13.

14. 참고. B. Clay, "COVID-19: A Biblical Plague?" (<https://answersingenesis.org/coronavirus/c>

성경은 전염병과 같은 질병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증명하는 표지라고 밝힌다(왕하 20:1-8; 욥 1:7-8; 시 91:3, 6, 10; 사 53:8). 따라서 코로나19를 구약성경의 재앙이나 전염병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¹⁵

신약성경에 '전염병'(λοιμός)은 누가행전에만 2회 등장한다(눅 21:11; 행 24:5). 그리고 '재앙'(πληγή)은 '구타' 혹은 '두드림'(knock, strike) 또는 '재난' 혹은 '불행'(calamity)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총 22회 가운데 계시록에 16회나 등장한다.¹⁶ 전염병과 재앙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써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다(눅 21:11; 요 5:14; 고전 11:30; 계 6:8; 9:18, 20; 11:6; 13:3, 12, 14; 15:1, 6, 8; 16:9, 21; 18:4, 8; 21:9; 22:18; 참고. 계 2:22; 시락 38:15; 시빌린 신탁 3:306; 유대고대사 19.343).¹⁷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전염병'(λοιμός)이라 불렀고(행 24:5), 전도를 위해 재난과 같은 상처(πληγή)를 입었다(행 16:23, 33; 고후 6:5; 11:23; 참고. 눅 10:30). 따라서 구약의 용례처럼 신약성경도 전염병과 같은 질병과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간단히 동일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¹⁸ 하지만 코로나19는 성경의 재앙과 유사한 점이 많다. 질병의 원인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염병과 재

ovid19-biblical-plague/; 2020년 4월 19일 접속); 박경수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37.

15. Mounce, *Mounce's Complete Expository Dictionary of Old & New Testament Words*, 515.

16. F. Montanari, *The Brill Dictionary of Ancient Greek* (Leiden: Brill, 2015), 1680.

17. W. Bauer, *BDA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825; J. P. Louw and 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Volume 1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93), 271; 박경수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54-55. 참고로 '재앙'(πληγή)의 동사(πλήσσω)는 '때리다'/'치다'라는 뜻이다(to strike, blow, slash, slap). R. Beekes, *Etymological Dictionary of Greek*, Volume 2 (Leiden: Brill, 2009), 1210.

18. C. L. de Wet, "Is Siekte 'n Straf van God?: Teologiese Perspektiewe uit die Bybel en die Apokriewe" (<https://www.litnet.co.za/is-siekte-n-straf-van-god-teologiese-perspektiewe-uit-die-bybel-en-die-apokriewe>; 2020년 4월 17일 접속)에서 요약.

양으로 인간의 범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점이다.

2. 전염병을 초래한 범죄와 회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과 산업 그리고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대기질을 비롯하여 생태계는 개선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착취한 인간의 탐욕이 초래한 인재(人災)이자, 하나님께서 생태를 보존하시려는 방책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범죄가 이런 재난을 초래했다면, 코로나19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확정기와 같다고 볼 수 있다.¹⁹

하지만 이와 다른 의견을 캠브리지대학교 구약 교수 케서린 델(K. Dell)에게서 볼 수 있다. 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 애굽과 출애굽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출애굽의 열 재앙과 코로나19를 동일시 할 수 없다. 열 재앙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치지 않은 것과 달리,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퍼져 그리스도인에게도 닥쳤다. 따라서 이런 열 재앙보다는 욥과 친구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나눈 대화 그리고 욥기 후반부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코로나19를 더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욥의 경우처럼 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은 타락한 세상의 한 부분이므로 가치중립적이다. 코로나19는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한 끔찍한 부산물이다. 따라서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내신 재앙이라 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런 재난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강화시

19. J. C. Nennox,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시까?』 (Where is God in a Coronavirus World?, 홍명룡 역, 서울: 아바서원, 2020), 23, 67-68.

키고, 가족과 건강과 친교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된다.²⁰

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현시하실 의도로써 애굽에 내리신 '재앙'과 세상의 불가피한 실재로서의 '재난'을 구분한다. 하지만 델도 인정하듯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 그리고 델이 주장하듯이 코로나19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라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서까지 개발을 이상처럼 숭배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살인, 도둑질, 행악과 같이 십계명을 어긴 인간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다(롬 1:29; 벰전 4:15). 제1계명을 어긴 죄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기보다 우상을 만들어 즐기며 안락과 쾌락을 추구한 것이다(계 18:22). 제2계명을 어긴 죄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주위의 난민과 같은 약자와 빈자를 외면한 개인주의이다(사 58:7).²¹ 제3계명을 어긴 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서약에 걸맞지 않은 실천적 우상숭배자(practical idolater)로 산 것이다(벰전 3:21). 제4계명을 어긴 죄는 자본을 우선함으로 7일 24시간동안 일중독에 빠져 안식을 무시하고, 형식적 예배에 빠진 것이다(출 20:10-11; 사 1:12-15). 모임과 약속이 취소되어 달력에 비어 있는 흰색 여백은 묵상과 자성의 시간이 중요함을 교훈한다. 제5계명을 어긴 죄는 전염병에 특히 취약한 노인과 부모를 평소에 존경하지 않은 것이다(엡 6:1). 제

20. K. Dell, "No, the Coronavirus is not an Act of God" (<https://www.churchtimes.co.uk/articles/2020/24-april/comment/opinion/no-the-coronavirus-is-not-an-act-of-god>; 2020년 4월 22일 접속).

21. 동로마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안(Justinian) 재위 당시인 AD 540년경 쥐와 벼룩을 통해 흑사병이 처음 퍼졌고 그 후 다시 확산되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 에베소의 요한(507-586)은 그 재앙을 가장 위험한 역병인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역병의 처방전은 이타적 구제였다. W. Witakowski, *Pseudo-Dionysius of Tel-Mahre: Chronicle. Part III*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96). 참고로 코로나19 당시 불신자들은 오프라인 예배를 시도한 교회를 향해 헌금을 모으려고 이웃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교회는 이웃을 구제하는데 헌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6계명을 어긴 죄는 전염병 시대에 낙태는 필수적인 서비스처럼 인식되는데, 하루에도 많이 자행되는 낙태와 같은 살인이다(사 1:15). 제7계명을 어긴 죄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성 규범을 무시한 것이다(롬 1:27; 골 3:5). 제8계명을 어긴 죄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전염병 시대에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탐욕 곧 이상승배이다(골 3:5). 제9계명을 어긴 죄는 그리스도인의 공적 담론이 사랑과 진실에 입각하지 않고, 세상 초등학교와 같은 이념을 이상으로 삼아 가짜 뉴스에 좌우된 것이다(시 89:14). 제10계명을 어긴 죄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구제를 무시하고 이웃의 재산을 탐하는 것이다(출 20:17; 롬 14:17; 계 18:12-13).²²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하여 심판하실 때 우리의 감추어진 죄는 드러나게 되며, 철저한 회개를 해야 소망이 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수퍼 코로나-20’과 같은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인이 절망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한다면, 부활과 자비의 하나님은 무너진 잔해더미로부터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런 심판과 회개를 통한 정화는 주님의 재림까지 반복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심판의 시대에 우리는 마음을 찢고 겸손히 ‘왜’라고 물어야 한다(레 16:10). 그리고 이유를 깨달고 새롭게 실천하며 회개해야 한다.

22. 십계명을 어긴 죄들은 P. Leithart, “Is This a Judgment?” (<https://theopolisinstitute.com/leithart-post/is-this-a-judgment>; 2020년 4월 16일 접속)에서 요약. 참고로 D. Shelton and Y. Shelton, *After COVID-19: What's Next?* (Westfrankfort: CABN Books, 2020)도 유사하게 본다. 하지만 Shelton부부는 감람산강화를 통해 코로나19를 재림의 징조로 보는데, 또 다른 전염병이 닥칠 수 있다고 본다(마 24:6-8; 참고. 딤후 3:2-3; 벴후 3:3-4).

3. 전염병 재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교회의 역할

존 파이프(John Piper)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6가지 일을 하신다고 설명한다. 그의 설명은 시사점이 많기에 아래에 요약하여 소개한다.²³

(1)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인간의 도덕적 참상과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죄악의 영적인 추함을 가시적이며 신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세상의 비참은 범죄 때문에 항상 있다(창 3:1-19). 타락한 세상에 비참, 탄식, 헛됨, 그리고 썩어짐의 종살이가 끊이지 않는다(롬 5:12; 8:20-22). 끔찍한 말이지만, 인간 역사는 ‘시체를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다. 하나님은 죽음, 재난, 비참을 허용하신다(암 3:6). 그리스도인도 쓰나미, 지진, 테러, 그리고 코로나19의 희생자가 된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정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이 썩어짐과 재난을 당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정화를 위함이다(롬 8:1; 살전 5:9). 하나님의 허락 속에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질병이나 비참 속에 일한다(눅 13:16; 요 12:31; 고후 4:4; 엡 2:2). 하나님은 물리적 세상을 재난과 비참 하에 두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한 세상이 당하는 가시적 재난을 인간에게 보여주셔서, 재난의 배후에 있는 끔찍한 죄의 실재를 보도록 하신다.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끔찍한 죄의 참상을 알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와 물질 세계를 통해서 교훈하신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질병은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같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회개하고 외치신다.

(2) 특정한 사람은 자신의 범죄의 대가로 질병에 걸리는데, 이것은 하나님

23. J. Piper, *Coronavirus and Christ* (Wheaton: Crossway, 2020), 55-99.

께서 코로나19를 통해 하시는 두 번째 일이다(행 12:23; 롬 1:27). 그러나 모든 질병은 범죄의 대가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질병이 온 것은 아닌지 겸손히 자신을 살펴야 한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범죄를 멈추고 자신을 정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벧전 4:1, 17-18).²⁴

(3)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재림을 준비하도록 교회를 깨우신다. 하나님은 재림의 산통과 같은 질병을 보내셔서, 재림이 뜻 밖에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시키신다(마 24:44; 눅 21:34).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닝콜과 같다(살전 5:4-10).²⁵

(4)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행하시는 네 번째 일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무한한 가치를 따라 살라고 청천벽력과 같이 경고하시는 것이다(눅 13:1-5).²⁶ 모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한다. 참 회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마 22:37). 회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더 사랑한 자살과 같은 선호(suicidal preference)의 죄를 포기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아무 것도

24. 아웨의 고난당하는 종(사 53:4-5)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은 박경수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40을 보라.

25.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 중 하나는 전염병이었다(눅 21:11; 계 6:8). 그러므로 전염병은 재림의 징조가 아니다. 김재성, “코로나19와 누룩: 마태복음 13장 33절,” 『신학사상』, 188 (2020), 7; contra 박경수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61, 64. 참고로 ‘Chosen People Ministry’와 같은 세대주의자 단체는 코로나19로 이스라엘의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기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권했으며(시 122:6), 전염병과 종말론을 중동 정세에 비추어 논의했다. Covid-19가 초래한 팬데믹과 혼란(예. 사제기)은 감람산강화와 계시록(특히 계 13:17)이 예언한 재림의 징조라는 주장은 M. Glaser, “The Impact of COVID-19 on Jewish Evangelism!” (<https://www.chosenpeople.com/site/>; 2020년 4월 21일 접속). D. Shelton, “Covid-19 & End Time Events: 3ABN Today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rWXMwY-QVgI>, 2020년 4월 22일 접속)를 보라.

26. 언약신학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거절당하고 상처 입은 사랑(rejected and wounded love) 때문이다. H-C, Hahn, “Anger, Wrath,”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ume 1. ed. by C. Brown (Grand Rapids: Zondervan, 1986), 109.

만족과 안전을 제공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한다.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도록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 강함을 증거했다(고후 12:7-9). 코로나19로 뼈아픈 상실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의 무한한 가치 곧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사는 유익을 깨닫게 한다(시 63:3).

(5)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하시는 다섯째 일은 자기연민이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용감하게 사랑의 선행에 힘쓰라고 교훈하시는 것이다(고전 10:31; 갈 2:10; 빌 1:20).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마 5:16). 성도의 선행은 위험한 어둠 속에서 더 빛난다(벧전 2:12, 24; 4:19). 예수님은 우리가 의와 선을 위해 살도록 구원하셨다(갈 6:10; 살전 5:15; 딤후 2:14). 그리스도인은 안전보다는 사랑을, 만족보다는 남의 필요를 살피고 추구해야 한다(마 6:19-21; 행 4:34; 고후 8:13-14).²⁷

27. 전염병 시대에 신체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는 특별히 세균혐오자(germaphobia)에게 필수 조치이다(참고로 사회적 동물인 사람은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를 할 수 없음). 팬데믹 상황에 고립된 가상적 공간은 불편한 일상으로 자리 잡는데, 장애인 경우는 더 하다. 투옥된 바울은 불편을 감수하고 에바브로디도와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그를 빌립보교회의 유익을 위해 돌려보냈다(빌 2:25). 그런데 2003년 사스(SARS) 재난 때, 토론토에 고립된 사람들 중 30%가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독이라는 또 다른 전염병을 낳기 쉽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플로리다의 유리 브리토(Uri Brito)목사는 “깊은 성찰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마차에 성급히 올라타서 돌아올 수 없는 사회적 묘지(social cemetery/pandemonium)로 향하지 않는가?”라고 무겁게 묻는다. 브리토는 기독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구체화되기에 일종의 ‘사회적 가까이하기’(social/physical nearing)라 규정한다. 한편이면, 예수님은 몸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다. 가현설주의자에 맞서 사도 요한은 성육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밝힌다(요일 1:1).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인 죄인들과 병자를 찾아 가셨듯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다가오셨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다. 따라서 브리토는 성육신과 부활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간주한다. 사도 요한은 종이와 먹으로 쓰는 대신, 성도를 대면하기 원했다(요일 12; 요삼 13).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가까이 하기는 체감할 수 있는 구제와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으로 잘 나타난다(살전 5:26; 벧전 5:14). 팬데믹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이지만, 교회는 더 강력한 사회적 연대(social bond)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종료되면, 고립과 고독 가운데 있던 교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6)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교회를 인도하신다. 일시적으로 사회가 폐쇄되고, 예배로 모일 수 없고,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재난은 교회가 새로워지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된다. 박해와 재난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행 7:60; 계 5:9). 사회에 두려움의 전염병이 퍼지면, 인생의 의미와 죽음 그리고 사후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구원과 복음에 대한 영적 갈망이 커지게 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시대 그리고 글로컬 시대에 나 홀로 혹은 한 나라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분투(ubuntu) 정신이 더 요청된다. 타인이나 다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나 자신과 내가 속한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내 가족과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주의를 넘어, 이웃과 전 세계를 사랑하고 배려하여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애국주의가 요청된다. 공동선은 사회-경제적 웰빙을 포함하여, 도덕적-영적으로 존엄한 인간 존재를 개선하는 것인데, 상호존중과 개방적인 '이웃됨의 에토스'(ethos of neighborliness)를 요청한다.²⁸ 더 깊고 지속적으로 방역하며 면역력을 키우는 방식은 사랑의 연대와 공동체성의 회복이다. 전염병 시대에 크리스천은 믿음을 견고히 하면서, 환대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흑사병과 콜레라가 확

복회자와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더 빛나기 마련이다. 1854-1855년에 런던에 연달아 발생한 콜레라 재난 때에 교인들을 성심껏 돌본 스펀전목사와 그 교회의 성숙한 교인들처럼 말이다. 참고. U. Brito, "A Response to Social Distancing" (<http://kuyperian.com>; 2020년 4월 18일 접속); N. Gupta, "Why Social Distancing is the Loving Thing to do Now" (<https://outreachmagazine.com/features/discipleship/53676-why-social-distancing-is-the-loving-thing-to-do-now.html>; 2020년 3월 29일 접속); 실내외 신체 활동의 중요성은 고풍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신체활동수칙,"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1 (2020), 109-112도 참고하라.

28. J. M. Vorster, "A Reformed Perspective on the Concept of the 'Common Good' and Its Relevance for Social Action in South Africa Today," *In die Skriflig* 50/2 (2016), 3-8.

산되었을 때, 세상은 피하고 숨으라고 외쳤지만 신실한 크리스천은 가능하면 머물러 도왔다.

교회는 지역교회나 기독교 NGO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회 건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제공하고,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하며, 정서적으로 돌보는 재난 구호사역을 신속히 수행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참고. 행 11:28-30).²⁹ 이런 실천은 사도신경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총체적 기독교 신앙을 사회적 관심과 연결하는 작업이다.³⁰ 한편 언하면, 교회의 선교사역은 영혼, 육체, 정서, 문화, 경제, 정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통전적 복음과 구원 사역의 패턴을 존중해야 한다(출 15; 마 22:37-40; 25:14-30; 눅 4:18-19; 고후 5:17-19).³¹

전염병과 같은 재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은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을 따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겸손히 연합하며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벧전 1:22; 3:8; 4:8-9).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위로가 된다(벧전 4:7; 5:9). 재난 시대에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기도, 사랑의 실천, 그리고 봉사이다(벧전 4:7-11). 기도, 사랑의 실천, 그리고 봉사의 공통점은 이타적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데 있다(벧전 4:11).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돌보시며 그들이 염려의 짐에서 안식하기 원하시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여 재난이 초래한 염려를 하나님

29. 장남혁, "지역사회의 탄력적인 재난 대처를 위한 교회의 선교적 역할," 424-26. 참고로 한국교회가 환경오염, 빈부 양극화, 그리고 통일시대를 앞두고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방안은 임희모, "지역사회를 섬기는 생명봉사적 통전선교," 『선교신학』 31 (2012), 223-25를 보라.

30. J. Jung, "Renewing the Church for Mission: A Holistic Understanding of Renewal for Korean Protestant Churches," *Missiology* 37/2 (2009), 252.

31. N-O, James, "The Mission of the Church and Holistic Redemption."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42/3 (2018), 196-203.

에게 맡겨야 한다(벧전 2:25; 5:7). 그리스도인은 재난을 관리하는 국가 권력에 협조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부당한 오해나 박해를 받아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여 스스로 웰빙을 지켜야 한다(벧전 2:13-17). 고난은 특별히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그 때 성육하신 선한 목자의 체휼과 보호를 신뢰해야 한다(벧전 2:21-24).³²

시라큐스대학교의 버터필드(R. Butterfield)는 재난의 시대에 크리스천이 사랑과 환대를 실천하는 것의 4가지 의미와 적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³³

(1)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크리스천이 즉각적이고 손에 잡힐만한 환대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형제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다(막 12:30). 남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³⁴

(2) 환대의 실천은 바이러스를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32. D. R. Edwards, "1 Peter and Good Shepherd Sunday" (<https://worship.calvin.edu/resources/resource-library/dennis-redwards-on-1-peter-and-good-shepherd-sunday>; 2020년 4월 17일 접속)에서 요약.

33. R. Butterfield, "Practice Hospitality. Especially during a Pandemic"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practice-hospitality-especially-pandemic/>; 2020년 3월 28일 접속)에서 요약.

34. 재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 이웃에게 환대를 실천하는 방법은 많다. 성도의 기도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피동성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학교가 폐쇄된 상황에서 맞벌이 이웃집의 아이들을 대신 돌보기, 이웃 노인들의 심부름하기, 마스크와 위생 용품을 제공하며 전도하기, 대형교회의 기도원이나 교육관 그리고 기독교대학의 기숙사를 보건의로 인이나 환자를 위한 숙소로 제공하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소비하기, 기독교 교직원은 학생을 위해 생활 구제비를 기부하여 제공하기, 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기, 교회당 근처 방역하기, 교회 의료선교팀의 지역 의료봉사, 크리스천 건물주가 임대료를 할인한 것 등이다.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권한만 추구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과 남을 돕다가 죽는 것 중 무엇이 더 멍에로운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중대형교회가 미자립교회의 임대료를 대납한 것은 교회 차원의 환대이다. 남아공 국민의 20%는 일상적으로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했다. 그런데 남아공의 한 기독교 인터넷 매체는 미켈란젤로의 날렵한 David상을 비뚤은 Covid상으로 바꿔 패러디했다. 굶주리는 이웃을 외면하고, 고칼로리 식사와 Netflix에 투자하다 운동부족으로 살이 찌는 것은 자신의 참 재물을 하늘에 두지 않은 증거이다.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자 코람데오의 삶으로 가능하다. 재난의 시대에 사회적 거리 두기, 치료, 백신 개발은 중요하고 가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재앙을 치료하시고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젖을 먹는 신앙(milk faith)에서 고기를 뜯어 먹는 신앙(meat faith)으로 자라야 한다.

(3) 환대의 실천은 자신을 CNN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에 흠뻑 적실 때 가능하다. 크리스천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力上加力) 시온에서 주님을 뵈어야 한다(시 84:7).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은 말씀 묵상, (금식, 회개) 기도, 시편과 찬송 부르고 듣기, 전도 등이다. 과도한 뉴스 시청과 가짜 정보는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악화시킬 것이다.

(4) 환대의 실천은 행정 당국의 노력에 협조하며 제6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크리스천이 해야 할 임무와 하지 말아야 할 의무, 둘 다 담고 있다. 크리스천은 제6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공동선)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은 제6계명을 설명하면서, 우리 자신과 나의 목숨을 보호하는 여러 방식을 소개한다. 행정 당국의 지침을 따라 모임을 자제하고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을 지키고 남을 돕는 노력이므로 제6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다.³⁵

35. 참고. Nennox,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70. 참고로 재난 시대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약자 보호는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기독교 방식이다. 길 잃어 위기에 빠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다수 99마리 양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눅 15:4). 낙태와 안락사를 반대한 보수 기독교인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기와 산모 그리고 노인이라는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소홀하게 만드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개인의 종교 자유가 공적 건강을 위협하도록 방지하면 곤란하다. 크리스천은 자신이 믿는 바를 조용히 실천해야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허

박해와 재난의 때에 크리스천의 환대 실천이 더욱 빛났음은 지난 역사가 증명한다. 재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고, 믿음과 용기와 지혜로써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요일 5:4). 코로나19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전염병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더 빠르게 전파되도록 기도하며 실천해야 하며, 고통당하는 세상에 동참하시는 주님과 이웃의 눈물을 기억해야 한다.³⁶

4. 중세 흑사병에서 얻는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한 교훈

오늘날 교회의 공적 역할은 교회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아니며 중세의 흑사병과 비교할 때 특별한 재난도 아니다. 전염병 덕분에 일부 기독교인이 재림의 징조라 여기는 베리칩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19처럼, 14세기 흑사병(黑死病)도 중국 북서지방의 초원에 살던 쥐가 박테리아의 숙주였다. 1331년 그곳의 풍토병(endemic)이 온 세계에 퍼진 것(pandemic)은 감염된 쥐 안에 살던 벼룩에 물린 사람들 때문이다. 실크로드를 통해 흑사병은 동쪽으로 퍼져 몽골제국이 큰 피해를 입었고, 1400년에 중국 인구의 절반가량인 5천 500만 명이나 급감했다. 흑사병은 4000km에 달하는 실크로드의 모든 지역과 유럽으로 확산했다. 무슬림들이 메카로 순례

세를 부린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격이 될 것이다. 참고. C. R. Moss. "When Faith threatens Public Health" (<https://edition.cnn.com/2020/03/24/opinions/coronavirus-religious-freedom-faith-liberty-moss/index.html>; 2020년 3월 26일 접속).

36. 박경수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109-114.

갔다 고국으로 돌아왔기에 흑사병은 더 확산되었다. 유럽에는 폐렴 증세의 흑사병이 퍼졌는데, 기침 등으로 사람에 의한 감염이 많았다. 감염된 사람은 대체로 3일 안에 사망했다.³⁷

14세기에 유럽인의 약 40%인 4천만 명이 흑사병으로 희생됐다. 김병용은 흑사병이 초래한 사회 변화를 몇 가지 제시한다.³⁸ (1) 가짜 뉴스와 희생양: 하나님의 심판으로 흑사병이 시작됐다는 신념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을 후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 크리스천을 죽인다는 가짜 뉴스와 유대인들에게 빛을 진 사람들이 채무에서 벗어나려는 욕심은 유대인 학살 추방과 학살로 이어졌다. 크리스천은 소수 종교인이었던 유대인은 물론, 무슬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스페인에서는 무슬림을 추방했다. 거꾸로 중동에서는 반기독교 정서가 퍼졌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은 십자군 전쟁 때보다 더 악화되었다. (2) 교회 신뢰도의 하락과 소위 '평신도' 중심 활동 강화: 치명적인 흑사병 때문에 사제가 환자를 심방하지 않고 장례 미사도 취소되자, 천주교와 사제에 대한 신뢰는 하락되었다. 그 당시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평신도는 기도공동체를 조직하여 연대하며, 스스로 돌보고 장례를 치르기도 했지만, 빨리 멀리 피신하여 늦게(cito, longe, tarde)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대책이었다. 그리고 재난은 천벌이 아니라,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점차 인식되었다. (3) 독일의 '채찍고행자들'처럼, 기존의 제도와 지배계급을 부정하며 회개와 재

37. 이 단락은 D. M. Fairbairn, "The Black Death" (<https://www.gordonconwell.edu/blog/the-black-death/>; 2020년 3월 24일 접속)에서 요약. G. Scriba, "The 16th Century Plague and the Present AIDS Pandemic: A Comparison of Martin Luther's Reaction to the Plague and the HIV/AIDS Pandemic in Southern Africa Today,"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126 (2006), 66 도 참고하라.

38. 김병용, "중세 말엽 유럽의 흑사병과 사회적 변화," 『대구사학』 88 (2007), 164-77.

립을 준비하는 천년왕국운동이 일어났다. (4)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과 물가가 상승했고, 인구 증가 정책과 세금 감면 등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했다.

하지만 흑사병에도 불구하고, 일부 크리스천들은 환자를 돌보고, 장례를 대신 치렀고, 자기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리스도인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흑사병에도 불구하고, 자가 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에 공적 봉사를 책임 있게 수행했다.³⁹ 중세 흑사병 훨씬 이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던지는 자’라는 별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실천은 티그리스강에서 라인강까지 휩쓴 ‘안토니누스 역병’(AD 165-180)과 ‘키프리안 역병’(AD 249-262) 때도 빛났다.⁴⁰ 고대 지중해 세계는 질병의 세계(world of disease)와 같았는데, 그런 상황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1519년 취리히 시민의 25%를 희생시킨 흑사병이 확산될 무렵, 그 병에서 회복된 츠빙글리는 로마서 9:19-29의 ‘토기장이와 토기’ 주제에 근거한 역병가(Pestlied)를 만들었다(참고. 시 69). 총 3절로 구성된 역병가의 3주제는 공포, 고통, 그리고 유일한 위로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이라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떠올린다.⁴¹ 흑사병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했다.

비텐베르크의 개혁가 루터는 결혼한 지 약 2년이 지난 1527년 7월에 흑사

병에 걸려 우울증도 겪었다. 루터는 1527년 11월에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글을 썼다. 흑사병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고 본 루터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연대를 통한 대응을 주장했으며, 시편 41:1-3과 91:11-13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시는 은혜를 기대하라고 강조했다. 그리스도인은 확장된 가족 정신으로 고아를 돌보아야 했다. 루터는 머물러 돕는 명예로운 자세를 강조했는데, 이웃에 대한 책임감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마 22:37-40). 목사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했으며(요 10:11), 머물러 돕는 강한 사람들은 역병을 피해 떠나는 약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했다.⁴²

제네바에 1542년과 1568-1571년에 흑사병이 덮쳤을 때, 칼빈과 베자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전염병이 퍼졌지만, 제네바 시민들은 치유의 수단을 활용하고 범죄를 회개하고 사랑의 실천에 힘쓸 것을 권면했다.⁴³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해 14세기 중순부터 17세기 중순까지 무려 2천만이 사망했다. 1636년 독일의 작은 도시 엘렌부르크(Ellenburg)의 목사 중 유일하게 생존한 마틴 린카르트(Martin Rinkart)는 자기 아내를 포함하여 4,000명의 장례를 치렀다. 그 당시 린카르트목사는 위대한 독일어 찬송가 ‘Nun Danket’(지금 감사하세)를 작시했다(21세기 찬송가 66장). 이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세. 마음과 손

39. 하나님은 재앙적 재난(catastrophic disaster)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적 정의(passionate justice)를 베푸시기에, 그리스도인에게도 공감하며 애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Iliff신학교의 L. K. Graham, “Pastoral Theology and Catastrophic Disaster,” *Journal of Pastoral Theology* 16/2 (2006), 6, 12-15를 보라.

40. 박경수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88, 207; Nennox,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73.

41. 조용석, “츠빙글리의 역병가(Pestlied) 연구,” 『장신논단』 46/2 (2014), 122-32; Scriba, “The 16th Century Plague and the Present AIDS Pandemic,” 78.

42. 이 단락은 Scriba, “The 16th Century Plague and the Present AIDS Pandemic,” 71-73에서 요약. 박경수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73-76도 참고하라. 참고로 칼빈은 개신교로 개종하기 1년 전인 1532년에 스토아철학에 근거하여 네로를 교육했던 세네카가 쓴 관용론을 주석했다. 세네카는 궁핍이라는 감정을 영혼의 질병으로 여겼지만, 칼빈은 그것을 참된 자선을 위한 기초로 보았다. 칼빈은 가장 위대하고 영웅적인 덕인 연민과 동정을 갖춘 사람을 선하다고 보았다. 참고. W. A. Dreyer, “John Calvin as ‘Public Theologian’ in View of His ‘Commentary on Seneca’s de Clementia,’” *HTS Theologes Studies* 74/4 (2018), 4-6.

43. 박경수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77-81.

과 목소리를 다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온 세상이 기뻐한다.”라고 찬송하며 중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헌신이자, 위협을 무릅쓴 사랑의 봉사였다. 역설적이게도 재난은 교회의 갱신과 부흥의 기회이다. 1889년의 기근과 그 무렵의 전염병 확산 때, 조선의 교회들과 선교사들의 헌신의 열매가 이를 증명한다.⁴⁴

5. A.C. in A.D.

이 글 서론에서 언급한 프리드만의 주장처럼, 코로나19는 B.C.와 A.C.로 나눌 정도로 위력적인가? 2020년은 A.C.의 원년인가? 그러나 A.C.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해(*anno Domini nostri Jesu Christi*)의 일부이다. A.D.는 A.C.에게 자신의 왕좌를 내주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강함 대신 약함을, 집단이기주의 대신 착함과 주변성을, 꽃길 대신 가시밭길을, 수직적인 영적 공동선과 더불어 수평적인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⁴⁵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이웃 중에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천 가정은 코로나19 덕분에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고, 부

44. 신형섭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목회적·교육적 성찰』, 25; 박경수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91-92 참고로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에서 천주교 신부 50명 이상이 교구 사람들을 돌보다 목숨을 잃었다(2020년 4월 28일 기준). 반면, 미국 마이클 벨트의 오순절 흑인 교회의 지도자 30명 이상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사망했다. 이것은 반 지성주의 및 반 상식적 처사이다.

45. 신형섭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목회적·교육적 성찰』, 34-35.

모의 권위, 홈스쿨링, 가정교육과 경건회의 중요성을 더 깨달을 수 있다.⁴⁶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역병은 11번째 재앙이자 치명타이지만(출 12:30; 계 9:20-21; 16:11).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거룩한 치료제’와 같다. 미로슬라브 볼프(M. Volf)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의도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 재난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볼프의 말대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갯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하신 ‘작은 부활’(little resurrection)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막 15:33-36). 그 작은 부활은 심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중에도 두려움을 정복하도록 만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넉넉한 은혜이다.⁴⁷

나오면서

코로나19 재난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기에, 죽음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리스천이 많기에, 이 전염병의 최종 목적은 파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재난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과 돌보시는 은혜를 믿고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義)에 충만하여 질병과 실직 등으로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성화시키는 은혜를 베푸시도록 간구해야 한다(롬

46. 신형섭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목회적·교육적 성찰』, 223-24.

47. Volf의 페이스북에서 인용. 참고로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한국 일부 교회가 도시 노동자 선교를 어렵게 수행할 때, 파키스탄교회는 1달러를 후원하며 연대를 표시한 바 있다. 사족을 달면, 민중 및 해방 신학의 이론적 근거와 방법론은 주의해야 한다.

8:28).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는 이웃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록하심과 살아계심을 선행으로 알려야 한다. 주일 오전예배나 특별한 절기 때만 교회당을 찾는 초신자나 종교인들이 오프라인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시기에 공동체에서 더 멀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보여야 한다.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를 비롯하여 박해로 인해 주일에 회집하지 못하는 지구촌 형제자매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연대해야 한다.⁴⁸

교회는 재난을 총체적 선교를 수행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재난은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재난 시절에, 많은 불신자들은 한국교회를 신천지와 유사하게 이기적 집단으로 취급했다. 왜냐하면 불신자의 눈에 일부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협조를 하지 않고, 공공선을 위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데 인색하게 비쳤기 때문이다. 세상과 함께 해야 하는 한국 교회는 침례교 사역자 찰스 김볼(C. Kimball)의 다음 주장을 뼈아프게 경청해야 한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신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이웃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종교는 이미 타락해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확신해도 된다.”⁴⁹ 또한 교회는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와 이웃의 약자들을 정성껏 섬겼는지 돌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는 환대

48. 참고, J. A. Pipa Jr., “The Lion roars: Thoughts on COVID-19” (<https://gpts.edu/wp-content/uploads/2020/03/The-Lion-Roars.pdf>; 2020년 4월 18일 접속).

49. 오클라호마대학교 종교학 교수 C. Kimball, *When Religion becomes Evil: Five Warning Signs* (HarperCollins, 2008). 박성철, “한국교회 내 기독교 파시즘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 (2020), 321에서 재인용. 승리주의와 자본을 신성화하는 변영복음에 빠진 배타적인 기독교 근본주의는 배제와 혐오를 특징으로 하는 기독교적 파시즘에 빠지지만, 기독교인은 고통을 주는 사람들조차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롬 12:14)는 주장은 박성철, “한국교회 내 기독교 파시즘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 (2020), 308-310, 321을 참고하라.

를 실천해야 할 공동체이기 때문이다.⁵⁰ 따라서 A.C.에 교회의 급선무는 대사회 신뢰도를 회복하여, 교회와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공공성을 결여한 폐쇄적인 신천지 집단과 달리, 생명 존중, 개방성, 투명성, 공존과 소통, 그리고 봉사 정신에 입각한 공적 에토스(public ethos)를 갖춘 공동체임을 증명해야 한다.⁵¹ 그러나 깊은 성찰과 구체적인 전략의 부족 그리고 실천의 취약함으로 인해 교회가 A.C.에도 B.C.로 회귀할 가능성은 적지 않은 듯하다. 또한 주기적인 재난에 노출된 재난사회에서 교회는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자기 생존을 우선시하기 쉽다.

그리스도인은 공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자기 성찰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는 세속 국가에서 기득권을 내세우거나 군림할 수 없는데, 자유, 생명, 평등, 정의, 연대와 같은 공공의 가치를 강화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은 범죄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대상에 인종과 계층과 성의 차별이 사라졌다(골 1:15).⁵² 이런 공적인 복음과 구원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복음 진리와 가치를 견지하면서, 세상 변혁을 위한 소통과 공존에 마땅히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그리고 평화를 퍼뜨리다가 재난을 당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행 16:23;

50. 신형섭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목회적·교육적 성찰』, 46-47.

51. 참고, 박경수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29; 이용주, “공공신학의 ‘탈사사회테제’ 비판: 탈세속화 시대에 다시 보는 종교의 사사화의 공공성,” 『기독교사회윤리』 45 (2019), 68, 83-88. 참고로 이용주는 자유민주주의를 매우 긍정하면서, 정교분리의 취지는 공론장(public sphere)에서 종교의 목소리를 퇴출하거나 내면화시키는 대신, 개인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정 종교가 국가권력을 정당화하거나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52. 김종걸, “공공철학과 기독교의 공공성,” 『복음과 실천』 56/1 (2015), 226.

24:5).⁵³ 코로나19는 스마트하고 건강한 사회(smart health society)의 중요성을 깨우쳤는데,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⁵⁴

참고문헌

- 경동현. "한국 천주교회 영성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연구." 문학박사 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8.
- 고광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신체활동수칙."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1 (2020): 109-112.
- 김병용. "중세 말엽 유럽의 흑사병과 사회적 변화." 『대구사학』 88 (2007): 159-82.
- 김재성. "코로나19와 누룩: 마태복음 13장 33절." 『신학사상』 188 (2020): 5-10.
- 김종걸. "공공철학과 기독교의 공공성." 『복음과 실천』 56/1 (2015): 217-42.
- 문현철. "해외 감염병재난 대응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응규정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1 (2020): 155-70.
- 박경수 외 (ed.).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 박성철. "한국교회 내 기독교 파시즘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 (2020): 303-326.

53. 김재성, "코로나19와 누룩: 마태복음 13장 33절," 10. 참고로 A.C.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을 병행하는 '올라인'(all-line) 목회가 더 중요해진다. 박경수 외,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232.

54.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스마트 헬스 소사이어티(smart health society)를 구축하여 향후 국제적 해외 감염병 재난의 발생 시 보다 신속히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헬스 소사이어티의 구축이 내국인 보호는 물론 재외국민과 북한 및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지원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인도주의적 휴머니티(humanitarian humanity)역할을 수행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문현철, "해외 감염병재난 대응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응규정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1 (2020), 168.

- 배춘섭. "성경적 상황화를 위한 'Missio Dei'의 재고(再考)." 『개혁논총』 51 (2020): 247-86.
- 송영목. "코로나19시대에 생각해 보는 공교회성 강화." 한국동남성경연구원 여름특별세미나 발제 글. 진주삼일교회당, 2021년 7월 6일: 1-13.
- 신형섭 외 (ed.).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목회적·교육적 성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 안명준 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서울: 도서출판 다함, 2020.
- 양현표. "교회의 원형으로서 '작은 교회'의 회복: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 『개혁논총』 51 (2020): 115-50.
- 이병욱. "재난에 대응하는 PCK의 선교신학과 지역교회의 선교적 실천." 『선교와 신학』 47 (2019): 351-85.
- 이용주. "공공신학의 '탈사사회테제' 비판: 탈세속화 시대에 다시 보는 종교의 사사화의 공공성." 『기독교사회윤리』 45 (2019): 63-93.
- 이종록. "재난(災難)의 해석학: 요엘 2장 1-17절 중심으로." 『성경연구』 9/8 (2003): 1-18.
- 임희모. "지역사회를 섬기는 생명봉사적 통전선교." 『선교신학』 31 (2012): 221-55.
- 장남혁. "지역사회의 탄력적인 재난 대처를 위한 교회의 선교적 역할." 『선교와 신학』 45 (2018): 411-40.
- 조용석. "츠빙글리의 역병가(Pestlied) 연구." 『장신논단』 46/2 (2014): 115-35.
- Bauer, W. *BDA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 Beekes, R. *Etymological Dictionary of Greek*. Volume 2. Leiden: Brill, 2009.
- Brito, U. "A Response to Social Distancing/Social Distancing and the Real Danger in an Age of the Corona Virus." <http://kuyperian.com>. 2020년 4월 18일 접속.
- _____. "Rituals in a Post Pandemic Age: 10 Notes on Food, Feasting and Friendship." <http://kuyperian.com/10-notes-on-food-feasting-and-friendship/>. 2020년 5월 8일 접속.
- Butterfield, R. "Practice Hospitality: Especially during a Pandemic."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practice-hospitality-especially-pandemic/>. 2020년 3월 28일 접속.
- Clay, B. "COVID-19: A Biblical Plague?" <https://answersingenesis.org/coronavirus/>

- covid19-biblical-plague/. 2020년 4월 19일 접속.
- Dell, K. "No, the Coronavirus is not an Act of God." <https://www.churchtimes.co.uk/articles/2020/24-april/comment/opinion/no-the-coronavirus-is-not-an-act-of-god>. 2020년 4월 22일 접속.
- De Wet, C. L. "Is Siekte 'n Straf van God?: Teologiese Perspektiewe uit die Bybel en die Apokriewe." <https://www.litnet.co.za/is-siekte-n-straaf-van-god-teologiese-perspektiewe-uit-die-bybel-en-die-apokriewe/>. 2020년 4월 17일 접속.
- Dreyer, W. A. "John Calvin as 'Public Theologian' in View of His 'Commentary on Seneca's de Clementia'." *HTS Teologiese Studies* 74/4 (2018): 1-8.
- Fairbairn, D. M. "The Black Death." <https://www.gordonconwell.edu/blog/the-black-death/>. 2020년 3월 24일 접속.
- Friedman, T. L. "Our New Historical Divide: B.C. and A.C.: The World Before Corona and the World After." <https://www.nytimes.com/2020/03/17/opinion/coronavirus-trends.html>. 2020년 4월 18일 접속.
- Glaser, M. "The Impact of COVID-19 on Jewish Evangelism!" <https://www.chosenpeople.com/site/>. 2020년 4월 21일 접속.
- Graham, L. K. "Pastoral Theology and Catastrophic Disaster." *Journal of Pastoral Theology* 16/2 (2006): 1-17.
- Gupta, N. "Why Social Distancing is the Loving Thing to do Now." <https://outreachmagazine.com/features/discipleship/53676-why-social-distancing-is-the-loving-thing-to-do-now.html>. 2020년 3월 29일 접속.
- Hahn, H-C. "Anger, Wrath."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ume 1. Edited by C. Brown. Grand Rapids: Zondervan, 1986: 105-113.
- James, N-O. "The Mission of the Church and Holistic Redemption."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42/3 (2018): 196-211.
- Jung, J. "Renewing the Church for Mission: A Holistic Understanding of Renewal for Korean Protestant Churches." *Missiology* 37/2 (2009): 237-63.
- Leithart, P. "Is This a Judgment?" https://thepolisinstitute.com/leithart_post/is-thiss-a-judgment. 2020년 4월 16일 접속.
- Nennox, J. C.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Where is God in a Coronavirus World?* 홍병룡 역. 서울: 아바서원, 2020.
- Louw, J. P. and Nida, E.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Volume 1.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93.
- Montanari, F. *The Brill Dictionary of Ancient Greek*. Leiden: Brill, 2015.
- Moss, C. R. "When Faith threatens Public Health." <https://edition.cnn.com/2020/03/24/opinions/coronavirus-religious-freedom-faith-liberty-moss/index.html>. 2020년 3월 26일 접속.
- Mounce, W. D. (ed). *Mounce's Complete Expository Dictionary of Old & New Testament Words*. Grand Rapids: Zondervan, 2006.
- Mussman, M. "Sickness and Disease." I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ume 6. Edited by D. N. Freedman. New York: Doubleday, 1992: 6-15.
- Pipa Jr., J. A. "The Lion roars: Thoughts on COVID-19." <https://gpts.edu/wp-content/uploads/2020/03/The-Lion-Roars.pdf>. 2020년 4월 18일 접속.
- Piper, J. *Coronavirus and Christ*. Wheaton: Crossway, 2020.
- Scott, B-S. "Where's Your Church's Money?: Banking for the Common Good." *Christian Century* September 21 (2010): 22-27.
- Scriba, G. "The 16th Century Plague and the Present AIDS Pandemic: A Comparison of Martin Luther's Reaction to the Plague and the HIV/AIDS Pandemic in Southern Africa Today."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126 (2006): 66-80.
- Shelton, D. "Covid-19 & End Time Events: 3ABN Today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rWXMwY-QYgl>. 2020년 4월 22일 접속.
- Shelton, D. and Shelton, Y. *After COVID-19: What's Next?* Westfrankfort: CABN Books, 2020.
- Vorster, J. M. "A Reformed Perspective on the Concept of the 'Common Good'"

and Its Relevance for Social Action in South Africa Today.” *In die Skriflig* 50/2 (2016): 1-9.

Witakowski, W. *Pseudo-Dionysius of Tel-Mahre: Chronicle. Part III*.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96.

Abstract

Covid-19 and the Role of the Church

Prof. Dr. Youngmog Song
(Faculty of Theology)

Christians who believe in the providence of God naturally ask various questions when a pandemic spreads and try to find out answers in the Bible. Is Covid-19 God’s judgment? If the plague is judgment, what does God do? And what should the church repent of? How can the church participate in what God is doing through this pandemic? What lessons can the church learn from the Medieval black death? And what is the aspect of the reign of the Lord (Anno Domini) after Covid19(A.C.)? By keeping in mind these questions, firstly the article probes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Covid-19. Then the present researcher investigates the role of the missional and public church in this pandemic time.

Key words: Covid-19, the role of the church, pandemic, common good, missional church

실천신학

팬데믹 시대를 위한 루터의 목회적 실천

우병훈(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초록]

흑사병이 만연했던 시대를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목회자로서 대역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는 전염병이 심할 때 목사, 위정자, 공무원, 의사, 간호사 등 공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피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웃을 신실하게 사랑하도록 독려했다. 그는 “왼손의 죄”와 “오른손의 죄”를 모두 비판했다. “왼손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전염병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혼자 살기 위해 도망쳐 버리는 사람들이다. “오른손의 죄”에 빠진 사람들은 만용에 빠져 약이나 의술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방역수칙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루터는 이러한 비겁함과 무모함 모두를 경계했다. 루터는 개인 방역